

# 김영록 “통합 공동정부 개념 운영”...他후보들에 ‘러브콜’

“모두 안고 가겠다” 협력 메시지  
 단일화 흐름 속 ‘포용 행보’ 강조  
 “이게호 의원, 사실상 합류” 언급  
 “마지막까지 네거티브 안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 간 단일화 국면으로 재편되고 있는 가운데 김영록 예비후보(전남지사 직무정지)가 경쟁 후보들을 향해 협력 메시지를 내고 ‘통합 공동정부’ 구상을 밝히는 등 향후 정책 연대 가능성을 시사해 귀추가 주목된다.

김 예비후보는 31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형배·신정훈·주철현 후보는 물론 중도에 아쉽게 꿈을 접은 강기정·이병훈·이게호·정준호 후보 모두 다 안고 가겠다”고 ‘러브콜’을 보냈다.

그는 “그분들의 좋은 정책들을 이어받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곧 출범할 통합특별시를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통합 공동정부의 개념으로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후보 간 연대 방식과 관련, 김 예비후보는 “주권자인 시·도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단순히 후보끼리 표를 주고 받는 합종연횡이 시·도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겠느냐”며 “정책적으로 서로 연



목포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31일 더불어민주당 김영록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 사무소에서 김 후보 지지 선언 후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목포지역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31일 더불어민주당 김영록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 사무소에서 김 후보 지지 선언 후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영록 예비후보측 제공)

대하고 협력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강기정·신정훈 후보 단일화에 대해 “두 분의 단일화를 존중한다”며 “강 후보와 지지자 분들에게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김 예비후보는 “강 후보와는 전남·광주 통합이라는 성과를 함께 거둔 최고의 파트너였고, 신 후보와는 한국에너지공단, 인공태양 등 유치 과정에서 밀접하게 논의하고 협력했던 좋은 파트너였다”며 “앞으로 인공태양 연구시설, 반도체 분야 등에서 선의의 정책 연대를 기대한

다”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그러면서 김 예비후보는 “통합특별시는 큰 기회이지만 주청사 문제, 의회 청사 문제, 재정 배분 문제, 지역별 산업 전략 문제 등 갈등이 산재해 있다”며 “40년 만에 통합한 광주와 전남의 현안들을 진정한 소통으로 조정하고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는 후보는 오직 김영록 뿐”이라고 통합 리더십의 적임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김 예비후보는 결선 진출 가능성에 대해 “(경선 후보였던) 이게호 의원이 사실상 합류돼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이 의원 캠프) 관계자들이 우리 캠프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다”며 “앞서 이 의원이 본경선이 끝나기 전까지는 지지 선언을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최근 합종연횡이 이뤄지고 있어 생각이 바뀔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김 예비후보는 “결국 주권자인 시·도민의 뜻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며 “조만간 (이 의원 측) 지지 선언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혔다.

기자회견에 앞서 김 예비후보는 “(경쟁 후보 간) 합종연횡에 연연하지 않고 제 갈 길을 가겠다”며 “모두를 안고 가겠다는 뜻으로 누구에게 나 열려 있다는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김 예비후보는 결선 과정 추가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선 “의심의 여지 없이 신 후보를 굳게 믿고 있으며 결선 진출에도 자신이 있다”며 “파트너를 가리지 않고 죽어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토론 과정에서의 공방과 관련해서는 “저까지 가세할 경우 네거티브로 비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모든 상대방의 공세에 대해서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대응하겠다”고 네거티브 전략 배제 방침을 분명히 했다. /변은진 기자

## 정의당 강은미, 전남광주특별시장 출마 선언

“민주 독점 깨고 시민 주인되는 정치”  
 마을 RE100 실현·60분 교통망 완성



강은미 전남광주특별시장 출마

정의당 강은미 광주시장 위원장이 3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강은미 예비후보는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시민이 특별하게 살아 빛나는 노동특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사진〉 김 예비후보는 “전남·광주 행정통합이 중앙 정치의 정치적 선택에 그치지 않으려면 실질적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전환점이 돼야 한다”며 “수도권 일극체제와 민주당 독점체제를 깨뜨리고 새로운 민주주의와 지역 경제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일하는 시민 모두를 위한 노동특별시장이 되겠다. ‘일자리 보장’, ‘안전한 일터’, ‘적정임금’을 위해 ‘모두의 기금’을 조성하겠다”

며 “공공부문 일자리부터 적정임금과 적정 노동이 보장되는 좋은 일자리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기후·에너지 분야와 관련, 김 예비후보는 “녹색에너지공사를 설립해 에너지를 시민의 이익으로 공유하고 1천개의 에너지전환마을과 1천개의 시민햇빛발전소를 만들어 시민참여형 마을 RE100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김 예비후보는 “녹색교통공사를 설립해 60분 생활교통망을 조기에 완성하고 전국 최초 친환경 무상 교통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예비후보는 “전남광주형 지역순환 경제를 설계하고 특별시공공은행 설립을 추진하겠다”며 “지역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선순환 경제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예비후보는 “민주당 1당 독점을 깨고 견제와 균형이 가능한 민주주의를 시작하겠다”며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가능한 진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일하는 시민이 진짜 주인이 되는 민주특별시를 만들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변은진 기자

## 민형배 ‘출산·육아·생활 3대 정책’ 제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을)이 31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출산·육아·생활 3대 정책’을 발표했다.

민 의원은 “출산과 육아는 더 이상 개인의 선택과 부담에 맡길 문제가 아니라 도시와 공동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성장 과정 전반까지 국가와 도시가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의 정책은 ▲출산 부담 완전 해소 ▲육아 정책 대폭 강화 ▲생활환경 개선 등 3대 전략으로 구성됐다.

‘분반비 ZERO’, ‘산후조리 ZERO’, ‘출산 준비금 ZERO’ 등 ‘출산 3무(無) 정책’을 추진하고 아이가 아를 때 안심할 수 있는 육아돌봄 체계도 구축한다. 27개 시·군·구 아동 전담 거점 병원 지정, ‘병원아동보호사’ 도입, ‘아이 돌봄 휴가제’ 확대 등을 담고 있다.

보건소와 공공시설을 활용한 ‘육아 만가지 궁

금센터’를 상설 운영하고 전남·광주를 어린이 중심의 창의문화 도시로 조성하겠다는 전략이다.

또한 유아차 이동이 편리한 ‘걸고 싶은 거리’ 30곳을 조성하는 한편, ‘전남광주 슈퍼앱’을 구축해 데이터와 광고 수익을 시민과 공유한다.

민 의원은 “아이의 웃음이 도시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라며 “출산, 보육, 생활 전반을 도시가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해 부모가 웃고 가족이 행복한 전남광주특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재정 기자

## 전남·광주 퇴직 공무원 144명 “곶지지”

전남·광주지역 퇴직 공무원들이 31일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을)을 지지 선언했다.

전남·광주 퇴직 공무원 144명은 이날 민형배 경선사무소 ‘민심캠프’를 찾아 “민 후보의 승리가 곧 시·도민의 승리이자 이재명 정부의 성공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변은진 기자

#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연금 서비스를 한번에**

**인제 어디서나 쉽고 간편하게**

한 번에, 한 눈에, 한 손에!  
1천만 고객이 선택한 NH국민연금!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콕 바로 바로 확인까지 콕!

**나를 가장 잘 아는 스마트한 카드!**

올바른 NEW HAVE 카드

- 기본계좌금리의 이월가맹점 0% NH무이자 채팅
- 스타트 적립금 2% 적립 / 월 영: 1% 적립
- 국제공항 렌터카 이용 서비스와 연계 제공
- 농협 안전보험(보험금)이 즉시바로 지급

**농협신용·저축**

걱정의 마음, 하나로 완성 - NH농비보험

일평균 3백만 원의 연회보험금 지급 보장  
이거 하나로 든든하게 100세까지 매년 보장

- 20~60세, 유병자도 간편 가입 가능
- 100세까지 비경쟁형(해당특약 가입시)
- 경신형 담보 제외
- 첫날부터 보험금 지급 및 첫날부터 보험금 지급 1% 할인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안한 환전·해외송금을 맡히다**

- 환전 | 해외여행 가까운 서광주농협에서 환전하세요
- 해외송금 | 안전한 서광주농협 해외송금으로 안심하고 보내세요

**농업인의 내일을 키우는 금융 농협이 함께 합니다.**

- 농업인 전용 금융지원
- 농지담보대출 특화상품
- 농지매매자금 대출연도 최대 80%
- 보유 농지 활용 자금 마련
- 영농·생활자금 지원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                         |                        |                          |                        |                        |                        |
|-------------------------|------------------------|--------------------------|------------------------|------------------------|------------------------|
| 기어지동지점 062)385-4977~8   |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 비 들 지 점 062)381-1971~2   | 등 립 지 점 062)513-8521~3 | 지 평 지 점 062)381-8212~3 | 쌍 촌 지 점 062)381-6551~2 |
| 동림아니로지점 062)531-7745~6  |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 등 운 지 점 062)528-2640~2   | 용 신 지 점 062)526-0222~3 | 유 덕 지 점 062)373-3235~6 | 유 동 지 점 062)512-1984~5 |
| 아니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 영동센터별지점 062)361-4472~4 | 상 무 등 지 점 062)372-3741~2 | 운 암 지 점 062)527-3295~6 | 와 정 지 점 062)372-0421~3 | 운 천 지 점 062)371-2772~3 |

지역 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